

♠ 재택 학습 중 개별 활동 내용 : 1단원의 다섯 작품을 읽고 각각 다음 1~5항을 노트에 써서 제출하기. 이는 수업시간 중 감상 나누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수행평가의 태도 영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1. 각 작품별로 읽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쓰거나 간추려 요약해 보세요.
2. 자신이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은 이유를 최대한 충분하게 문장으로 써보세요.
3. 읽고 나서도 궁금한 의문점을 각 작품별로 둘 이상 적어보세요.
4. 작가가 작품을 통해 결국 말하고자 한 욕망은 무엇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5. 《추가》: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을 찾아 노트에 전문을 행 구분하여 써보세요.

※ 참고 : 어휘력은 가장 중요한 레벨 아이템입니다. 생소한 낱말을 꼭 익혀두세요.

※ 주의 : 제출 인정 비율 - 첫 국어 시간 100%, 이후 1일 지연에 -10%에 유의하세요.

1단원. 문학, 쓰기, 읽기와 첫 만남

(1) 문학의 숲과 나무

❶ 자화상 / 윤동주<sup>1)</sup>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 윤동주 (1917~1945)

시인. 일제 강점기에 옥사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서시’, ‘또 다른 고향’, ‘별 헤는 밤’ 등이 있고, 유고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다.

## ② 최척전(崔陟傳) / 조위한<sup>2)</sup>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 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 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 씨의 딸 옥영에게서 구애의 폭저를 받는다. 그 후 최척은 옥영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 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왜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義兵)<sup>3)</sup>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 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하지만 옥영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첫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丁酉再亂)<sup>4)</sup>이 일어나 최척과 옥영은 또다시 헤어진다.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騎兵)<sup>5)</sup> 10여 인을 이끌고 남원 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 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 총병(吳總兵)<sup>6)</sup>의 천총(千總)<sup>7)</sup> 여유문(余有文)이라 하오. 집은 절강성 요흥(姚興)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살 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 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노닐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웅색하게 살 이유가 무어 있겠소?”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필을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名簿)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왜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왜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왜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왜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 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은까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2) 조위한 (1567~1649)

조선 중기의 문신. 호는 현곡. 직제학, 공조 참판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저서로 “현곡집”이 있다.

3) 의병: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

4) 정유재란: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 휴전 교섭이 결렬된 뒤, 선조 30년(1597)에 왜장 가토 기요마사 등이 14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와 일으킨 전쟁.

5)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

6) 총병: 명나라 때의 고위직 무관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때 임시로 두어 전체 군사를 통괄하게 함.

7) 천총: 명나라의 하급 무관직으로, 천 명의 부하를 거느림.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혜정(慧正)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붙잡아여 거두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 씨와 번갈아 업어 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다.

이때 옥영은 왜적 돈우(頓于)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왜장(倭將)<sup>8)</sup> 소서행장(小西行長)<sup>9)</sup>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돈우는 명민한 옥영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옥영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옥영의 꿈에 장륙불(丈六佛)<sup>10)</sup>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옥영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돈우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옥영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內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옥영은 돈우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성들이 하는 일은 하질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돈우는 펍 가련히 여겨 옥영에게 ‘사우(沙于)’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航海長)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왜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최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과 회수(淮水)를 떠돌며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았다. 용문을 보고 우혈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악양루에 올랐으며 고소대에도 올랐다.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해섬 도사(海蟾道士) 왕용(王用)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하며

8) 왜장: 일본 장수를 낮잡아 이르는 말.

9)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일본의 무장. 임진왜란 때에 선봉장으로 조선에 출병하여 평양까지 침공하였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싸우다 패하여 살해되었음.

10) 장륙불: 장륙불상. 높이가 일 장(丈) 육 척(尺)이 되는 불상.

신비로운 선약(仙藥)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蜀)<sup>11)</sup> 땅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이때 송우(宋佑)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號)<sup>12)</sup>가 학천(鶴川)이고 집은 항주(杭州) 용금문(湧金門) 안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최척과는 서로 지기(知己)<sup>13)</sup>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 땅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얼근히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字)<sup>14)</sup>로 부르며 말했다.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 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오월(吳越)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나?”

최척이 홀연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경자년(1600) 봄이었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浦口)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 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이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염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뼀다.

최척은 홀로 선창(船窓)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 꾸러미 안에서 통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 보려 했다. 최척의 통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염불하던 소리가 똑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왕자교(王子喬)<sup>15)</sup> 통소 불 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sup>16)</sup>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봉래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찻잔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얼이 빠진 사람 같았다. 저도 모르는 새 통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11) 촉: 지금의 사천성 지역.

12) 호: 본명이나 자 이외에 쓰는 이름. 허물없이 쓰기 위하여 지은 이름임.

13) 지기: 지기지우(知己之友).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14) 자: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예전에, 이름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관습이 있어서 흔히 관례(冠禮) 뒤에 본이름 대신으로 불렸음.

15) 왕자교: 주나라 때의 신선으로, 통소를 잘 불었다고 함.

16) 난새: 난조(鸞鳥).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모양은 닭과 비슷하나 깃은 붉은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소리는 오음(五音)과 같다고 함.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야.”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왜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杜洪)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아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 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이를 보고 기뻐하는 데 견줄 수 있겠소?”

옥영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툭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 가락인 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 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 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 왔다.

최척과 옥영은 마주 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뒷부분의 줄거리] 최척은 옥영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인 몽선을 낳고,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킨다.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된다. 최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온 아들 몽석과 포로수용소에서 재회한다.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옥영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최척과 재회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 (2)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

### 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소광리 소나무 숲 / 신영복<sup>17)</sup>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 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씁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風霜)<sup>18)</sup>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려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 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복원 공사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宮制)<sup>19)</sup>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판일<sup>20)</sup>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sup>21)</sup>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不文律)<sup>22)</sup>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怒氣)<sup>23)</sup>가 사람을 해치기

17) 신영복 (1941~2016)

교수. 작가. 연대와 화합, 자연과의 상생을 꾀하는 철학적인 글을 많이 썼다. 주요 저서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담론”, “처음처럼” 등이 있다.

18) 풍상: ①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궁제: 궁궐의 형태.

20) 산판일: 나무를 찍어 내는 일판에서 나무를 베는 따위의 일.

21) 그루터기: 풀이나 나무 등의 아랫동아리. 또는 그것들을 베고 남은 아랫동아리.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 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高節)<sup>24)</sup>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곧은 동치<sup>25)</sup>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곧은 지조를 읽어 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侵襲)<sup>26)</sup>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 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 드렸던 글귀를 엮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죄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 주지 않는 한 죄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

22) 불문율: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

23) 노기: 성난 얼굴빛. 또는 그런 기색이나 기세.

24) 고절: 높은 절개.

25) 동치: 큰 나무의 밑동.

26) 침습: 갑자기 침범하여 공격함.

## ②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 이영희<sup>27)</sup>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다.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양이다.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했다.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하여 젖에서 혈우병(血友病)<sup>28)</sup>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들이다.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견잡을 수 없이 퍼져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 논쟁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이다. 생명 과학<sup>29)</sup>이나 생명 공학<sup>30)</sup>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胚芽)<sup>31)</sup>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므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학문 및 연구를 하는 데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이었다.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社會契約)<sup>32)</sup>이 맺어진다.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반(基

27) 이영희(1961~ )

교수, 과학 기술과 사회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 “과학 기술의 사회학” 등이 있다.

28) 혈우병: 조그만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나고, 잘 멎지 아니하는 유전병.

29) 생명 과학: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

30) 생명 공학: 생명 현상, 생물 기능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을 통틀어 이르는 말.

31) 배아: 단세포인 수정란이 다세포가 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분열하는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시작한 이후의 개체.

32) 사회 계약: 개개의 인간들이 모여 일정한 질서와 규율 밑에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나 국가를 이루는 현상을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르는 말.



韓)<sup>33)</sup>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 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제1차 사회 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 과학 재단, 국립 보건 연구원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학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에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 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다.

제2차 사회 계약이란 바로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사회 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다.

요컨대 이 제2차 사회 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

---

33) 기간: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

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점차 퇴조하였다. 그리고 과학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과학 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자 가치라는 점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학 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나 규제나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동선(共同善)<sup>34)</sup>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

34) 공동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